



## FTA 지각생 한국도 '발등의 불'

세계는 FTA 전쟁 | 한국 동향  
20여개국과 동시다발 체결 추진 . . .  
머뭇거리다간 FTA 선점 경쟁국에 시장 뺏길 판

작년 4월 1일 한국의 1호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148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밖에 없었다. 칠레와의 협정도 1999년 협상을 시작해 발효까지 5년이 걸릴 정도로 난산(難産)이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의 FTA 체결에는 2년 정도가 걸린다.

그로부터 1년6개월여가 지난 올 10월 현재 한국은 캐나다, 아세안 10개국 등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7월 협상을 시작한 캐나다와는 9월 27~30일 서울에

서 양국 관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협상을 벌였다. 내년까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과는 올 2월 협상을 시작, 정식 협상만 6차례 했으며 수시로 소규모 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 안에 기본 협정을 타결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합의한 '2005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적인 FTA'란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 개방에 난색을 보여 교착상태지만 협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멕시코와는 FTA와 유사한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인도·MERCOSUR(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과는 정부 차원에서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올해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열었고, 중국과도 민간기리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FTA 타결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지난 8월엔 싱가포르와 2호 FTA를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EU(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가들의 무역연합인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와는 7월 최종 협상을 타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특히 EFTA와의 협상은 작년 8월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마무리될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한수 외교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



▲ 지난 8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과 림홍경 싱가포르 통산산업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FTA 타결이 서명했다.

들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교역 상대국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FTA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쟁국인 일본·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FTA 경쟁에 나서는 것도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올 7월 아세안 10개국과의 FTA를 발효하면서 일거에 FTA 강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올 4월 북미시장의 교두보인 멕시코와 FTA를 발효시켰다. 일본은 아세안을

사이에 둔 경쟁에선 중국에 뒤졌지만 필리핀(2004년 11월)·말레이시아(2005년 5월) 등과 잇따라 FTA를 타결시키면서 뒤쫓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다자주의에 기울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다. 하지만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도 맘이 맞는 나라끼리 개방을 확대하자는 FTA에 무게를 두고 있다.

FTA 지각생인 한국은 시간이 촉박하다. 한 건의 FTA 추진에 최소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해도 20여개국과 순차적으로 체결하려면 앞으로 20년이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간절약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

또 여러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국내업계의 이해를 조절하기 쉽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는 일본에서의 수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한·일 FTA에 거부감이 있지만, 아세안과 동시에 FTA를 추진하면 아세안으로는 수출이

늘어나 일본에서 오는 피해를 상쇄할 수 있어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희 외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고 각 FTA별로 다른 효과를 상쇄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아직 통상협상이 박수를 받은 적은 없다. 주고 받는 통상협상의 특성상 경쟁력 낮은 산업의 보호막은 벗겨지고 구조조정이 뒤따르며 구조조정의 피해자는 분명하지만 이득을 얻는 불특정 다수는 침묵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감대와 정부의 리더십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현재 진행 중인 FTA도 발효까지 5년을 끌었던 한·칠레 FTA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동시다발 협상은 전략과 우선순위 없이 일이 추진된다는 느낌을 준다"며 "자연스럽게 경제 협력과 무역이 늘어나는 일본·중국보다는 지역적으로 먼 미국과의 FTA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